

이준호 Lee Junho (b.1972)

 @narara7723

학 력	2007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졸업 1998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개 인 전	2021 초대 개인전 (NC갤러리) 마음으로 새기는 산수풍경 (제주 한림 컨싱턴리조트) 칼끝에서 핀 산수풍경 (NC백화점 신구로점) 칼끝으로 이어진 산수 (NC백화점 강서점) 2018 칼로 그리는 산수 '단색화에 새겨진 풍경' (Art space LOO) 2017 칼로 그리는 산수 - 新산수 (탐앤탐스, 블랙 도산로점) 2016 칼로 그리는 산수 (장은선갤러리) 2014 칼끝으로 세우는 의지 (이랜드스페이스) 2012 붉은 산 - 관념적 사유에서 바라본 풍경 (화봉갤러리) 2011 칼 - 굵고 칠하고 다시 굵기 (JH갤러리) 2010 칼끝 - 풍경 (영아트갤러리) 그 외 다수
초대 / 단체전	2024 CROSSLINE 이준호&지현정 2인전 (맨션나인, 서울) 2022 봄 그리고 희망 3인 초대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2 언택트 라이브갤러리 (신세계 타임스퀘어) 2021 자연과 풍경(오산시립미술관/오산) 2021 이랜드갤러리'아트로'기획 초대 (여의도컨싱턴호텔) 2020 신소장품전 플러스(오산시립미술관, 오산) 2019 아트앤드 라이프 4인 초대전 (라메르갤러리, 서울) 2018 Oriental Fantasy 2인 초대전 (아트소향 갤러리, 부산) 2018 용인우수작가 3인 초대전 (벗이미술관, 용인) 2011 신한은행 PB센터 초대전 (여의도, 서울)
아 트 페 어	2024 더 그랜드 아트페어(신라호텔) 2022 ACA 헤이리 아트페어(헤이리 예술마을) 2022 BAMA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벡스코/부산) 2011 도어즈아트페어(임페리얼호텔/서울) 아시아탑갤러리 호텔아트페어 (하이얏트호텔/서울) 2010 아트로드77 (파주 헤이리 예술인 마을)
작 품 소 장	국립현대미술관-미술은행, 이랜드문화재단, 용인시청, 컨싱턴 제주호텔, VERSI미술관, 노화랑, 인사갤러리, 백운갤러리(ETRO), 화봉갤러리, 장은선갤러리, 탐앤탐스 본사, Art space LOO, 오산시립미술관 그 외 다수 개인소장

[Artist's Note]

예리한 칼 끝으로 그려낸 오늘날의 산수

나에게 있어 산수는 내 삶의 숨과 같다. 어린 시절 붉은 해가 내려와 온 세상을 덮는 자연을 보며 쇠고챙이 하나 들고 흙바닥에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산, 들, 나무, 자연의 풍경들을 그리던 나는 이제 칼을 쥐고 화폭 앞에서 있다. 붓이 아닌 연필 깎는 '칼'을 화구로 흰 캔버스 위 산과 계곡의 풍경을 담아내었다.

나의 대표작인 붉은 산, 신-산수, 산수경 시리즈는 도끼로 찍어 쪼개듯 날카로운 칼로서 화면을 파내고 긁어내는 과정의 반복으로 완성된다.

먹으로 표현되는 전통 회화를 서구의 현대적인 기법인 스크래치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접점을 절묘하게 유지하며 과거와 현재의 연결 선상에서 새로운 산수의 지평을 열고자 하였다.

한국적인 정서인 오방색의 의미를 이어가면서 칼 끝으로 예리하게 새겨진 산수의 형상은 자연순환의 중심에 있다. 날카로운 칼끝으로 수 만 번의 선 긋기를 통해 무더져 떨어져 나간 칼날들은 화폭아래 수북히 쌓인다. 그 시간만큼 겹쳐진 거친 선들은 바위를 형성하고 선이 깊이 파여져 계곡과 능선이 형성된 산의 형상으로 드러나 산수풍경으로 완결되어 진다. 칼을 쥐고 선을 그어 나갈 때의 마음은 유물을 발굴하듯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는 인고의 시간과 같다. 인내와 수양의 시간으로 칼로서 선을 만들어 빈 화면을 긁어내는 물입의 순간 혼탁한 마음은 정화되어 새로운 산수로 펼쳐지고 있다. 고도의 정신성으로 수행의 시간과 그것을 견디어 내어 분출하는

에너지의 축적으로 산세의 기운과 익살스러운 캐릭터들은 소통의 매개물로 긍정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

칼은 고대부터 단순히 생활도구, 전쟁무기로서 뿐 아니라 나쁜 기운을 끊고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칼로 그린 나의 작품 속 에너지를 보는 이들도 함께 느끼고 즐기기를 소망한다.